

광주일보·KBC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 <광주 광산구 갑>

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후보 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광주 광산구갑 편이 2일 오후 2시 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. 광주방송 신선희 보도국장의 사회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김동철(민주당), 박정수(평화통일가정당), 송병태(무소속), 조재현(한나라당), 조삼수(민주노동당) 후보가 참석했다.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, 지역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등을 확인한 이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.

“영산강 뱃길 복원” “운하는 환경 파괴” 공방



■ 김동철 (통합 민주당)
“과학기술원법 개정 꼭 통과 시키겠다”

◇ 공통질문
▲사회=광주 R&D특구 지정과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에 대해서
▲박정수=학사를 길러내지 못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을 민주당이 3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서둘러 입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. 국회에 가면 선두에 서서 입법화할 것이다.
▲송병태=R&D 특구법안은 광주 발전의 획기적 법안인데 통과시키지 못해 안타깝다.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못한 것이다. 정치력 부재가 한심스럽다.
▲조삼수=R&D특구 및 과기술원법 개정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정치력 부재를 보여줬다.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. 내가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.
▲김동철=연구개발(R&D) 특구가 되려면 과학기술원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. 이 법안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다. 정부 부처에서 조정이 늦어져 17대 국회 막바지에 가속도를 냈다. 여당인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된 상태여서 통과는 문제없다.
▲조재현=과기원법 개정에 실패한 것은 호남에서 만든 참여정부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다. 여당의원이 되면 반드시 통과해 낼 것이다.



■ 조재현 (한나라당)
“영산강 뱃길 복원 2급수로 만들어야”

▲사회=영산강 운하 건설에 대해
▲조재현=영산강 운하는 뱃길 복원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. 영산강은 수질 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. 뱃길 복원을 통해 2급수로 만들어야 한다. 예산과 환경 논란이 문제다. 하상 정비나 기반시설은 국고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하면 된다.
▲송병태=반대한다. 첫째는 환경을 파괴, 재앙을 부를 것이다. 또 부자 대비 효과에서 가치가 없다. 다만, 수질 개선과 환경 복원 차원에서 뗏목이나 유람선이 다닐 정도면 찬성한다. 배(수송선)가 다닐 정도로 복원할 필요는 없다.
▲박정수=반대한다.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. 다만, 뱃길 복원 등과 같이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야 한다.
▲조삼수=반대한다. 첨단 시대에 역행하며 시대착오적 70년대식 착상이다. 모든 국민이 웃는 발상이다.



■ 조삼수 (민주노동당)
“기부금 입학제 반대 등록금 상한제 추진”

▲조삼수→박정수=사교육비 등으로 서민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. 대학등록금 150만원 상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.
▲박정수=기본적으로 150만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다.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사랑이 있다면 된다.
▲조삼수→송병태=재래시장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송 후보 청장 재임시 두 개의 대형 마트 중 하나를 허가했다. 그러면서 이제는 영업 제한을 말하고 있다.
▲송병태=광산구 유통구조가 취약해서 두 개는 허락했지만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.
▲조삼수→송병태=송 후보 구청장 재직시 부인이 공무원 7명으로부터 승진 청탁 사례금을 받은 것 보도됐다.
▲송병태=죄송하다. 부인을 잘못 다스린 면이 있고 가정에 등한히 했다. 사법기관으로부터 나는 혐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.
▲박정수→조삼수=민주당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. 서민만 대변하는 것은 문제 있다.



■ 박정수 (평화통일가정당)
“운하 경제성 없어 생태환경 보전해야”

▲김동철=반대한다.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환경 대재앙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. 단지 뱃길 복원은 전문가의 검증과 시·도민의 동의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심층적 검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◇ 상호 토론
▲조삼수→김동철=얼마 전 측근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부도덕한 일이 있었다.
▲김동철=측근의 불미스러운 일은 사과한다. 해명



■ 송병태 (무소속)
“공군비행장 이전 민항 이전은 차후에”



2일 오후 2시 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광주방송(KBC) 주최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토론회 모습. 왼쪽으로부터 김동철(민주당), 박정수(평화통일가정당), 송병태(무소속), 조재현(한나라당), 조삼수(민주노동당) 후보. /L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한다면 전문 취업브로커에게 이용당한 것이다.
▲조삼수=민주당은 부자나 재벌을 위한 정당이고 노동자·농민·서민을 위한 정당이다.
▲조재현→조삼수=등록금 상한제는 실현이 어렵고 기부금 입학제가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있다.
▲조삼수=반대한다. 돈 많은 사람만 대학 가게 된다. 등록금 상한제 150만원 관련법은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.
▲조재현→김동철=과기원법 개정안 다시 추진하다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책임지겠다.
▲김동철=이를 위해 광주·전남 20명 국회의원 중 나쳐림 나신 사람이 없다. 한나라당과 합의된 상태에서 4월 국회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.
▲조재현→송병태=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.
▲송병태=그동안 공군비행장 이전을 추진했다. 다만, 민공항은 고속전철 개통과 더불어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.
▲조재현→송병태=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공약이 있다.
▲송병태=그린벨트 특별법은 악법이다.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. 이것 때문에 조화로운 개발도 안 된다.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.
▲송병태→조삼수=광산구 노사정에 민노총이 참여할 의도는 없는지.
▲조삼수=전제조건이 필요하다. 행정적, 이론적으로 노사화합을 선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.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 봐야 한다.
▲송병태→김동철=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시·구의원 한명도 당선 못 시킨 것은 민심 이반이고 지도력 부족 아닌가.
▲김동철=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심이 민주당을 선호해서 인물과 정책을 보지 못한 선거여서 아쉬웠다.
▲김동철→송병태=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이 확실시되니 무소속 출마하고 또 이번에도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.
▲송병태=그것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횡포다. 개탄스러운 일이다.
▲김동철→송병태=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. 또 잘못됐다면서 당선되면 복당한다니 말이 되나.
▲송병태=잘못된 답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. /정리=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Advertisement for Slava's SNOWSHOW featuring a snowman and event details. Text includes: '브로드웨이를 넘어 전세계를 감동시킨 한희의 눈보라!', '2008 슬라바의 스노우쇼', 'Slava's SNOWSHOW', '주최: 광주CBS', '후원: KBC라디오', '장소: 광주과학기술원 대극장', '공연일시: 4월 2일(수)~4일(금) 오후 7시 30분, 5일(토) 오후 3시 7시, 6일(일) 오후 2시 5시', '예매: 티켓링크, 인터파크, 광주교보', '문의: 1544-0412, 전화: 376-8500'.